

# 여인

### 이상적 아름다움 예술 영감의 원천

▶김창희 작 '여인상'



###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컬렉션 '여인의 초상' 전

### 피카소·마리 로랑생·강연균 등 23명 작품 72점 전시

여인은 언제나 예술적 영감을 주는 원천이었다. 여성편력이 심했다고 알려진 피카소(1881~1973)는 일생 여인 7명을 만났다. 만나고 헤어짐은 작품에 영향을 끼쳤고 수많은 명작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11월6일까지 열리는 하정웅컬렉션 '여인의 초상'전은 피카소, 마리 로랑생, 벤 산 등 국내외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16일 첫은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자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소녀 그림이 반긴다. 프랑스 마리 로랑생(1883~1956)이 그린 '머리에 리본을 맨 소녀'다. 새까만 눈매를 한 소녀는 마치 동양인을 그린 듯 단아한 느낌을 풍겼다. 마리 로랑생은 남성 중심 프랑스 미술계에서 독특한 화풍으로 인정받은 몇 안되는 여성화가다. 파스텔톤 섬세하고 관능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마리 그림을 통해 이번 전시 분위기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전시는 '이상적 아름다움으로서 여인', '예술적 영감으로서 여인', '여성의 삶과 애환' 등 3개 주제로 공간을 나눠 작가 23명 72개 작품을 선보인다. 약 100평(330㎡) 공간에 조각, 회화를 아끼지 않게 배치하며 공간 구성에서도 여성성이 느껴진다. 전시를 담당하는 김희량 학예사는 "이번 전시는 시대별 나라별로 다른 다양한 여인 초상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푸른색과 흰색으로 벽면을 꾸민 첫 번째 섹션 '이상적 아름다움으로서 여인'에서는 이상적 여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피카소, 마리 로랑생, 피에르 폴리나, 후지타 투구하루, 야수오 구니요시 등 해외 작가와 재일작가 전화환, 광주 강연균 화백, 김창희, 강철수 등 작품을 전시한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전시장 한쪽 벽

면을 차지하고 있는 무용가 최승희 사진 3점이다. 하정웅 명예관장이 2003년 기증한 사진을 확대 출력했다. 1930년대 무용가로 시작해 광고모델,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며 유럽, 미국, 중남미까지 진출했던 그녀다. 지금보다 촌스럽지 않은 단발머리와 화장은 그녀가 왜 일본 대표 미인으로 선발됐는지 쉽게 이해가 된다. 세초롭힌 표정이 인상적인 '무희', '장미를 든 여인' 등 강연균 작품을 지나 일본 기네가 등장하는 나카가와 이사쿠 작품이 보인다. 한일 작가들이 바라본 여인 시선을 비교하는 즐거움이 있다. 발걸음을 더 옮기면 프랑스 화풍에 영향을 준 후지타 투구하루 스케치 작품 '유진코'와 피카소가 말년에 만났던 마지막 여인을 그린 '여인상'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두번째 섹션 '예술적 영감으로서 여인'에서는 고국을 그리워하는 재일교포 오일 작가의 마음이 전해진다. 벽면을 따라 걸린 '흰 모자를 쓴 소녀', '소녀2', '어머니2' 등 작품 10여점은 작가가 어릴 적에 본 한국 사람들이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작가는 일곱살 때 할머니와 귀국해 고향(경남 거창)에서 약 6년간 살았다.

추상작가로 알려진 재일교포 문승근(1947~1982) 작품도 볼 수 있다. 번짐 효과를 활용해 개성 어린 여인 얼굴을 그렸다. 35살 나이에 요절하는 그는 비슷한 연배인 이우환 작가와의 일화로 유명하다. 일본 화단에서 인정받기 위해 일본 이름을 사용하던 중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이우환 작가에게 털어놓았고 "진짜 모습에 충실하라"는 말을 듣는다. 이후 당당하게 한국 이름을 사용했다. 전시 작품은 고민을 떨쳐낸 문 작가가 마음껏 발산한 예술 열정이 담겨있다.



파블로 피카소 작 '여인상'



마리 로랑생 작 '머리에 리본을 맨 소녀'

마지막 공간은 주제 '여성의 삶과 애환' 답게 짙은 녹색으로 고풍, 절규 등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출산하는 여성을 그린 미국 벤산 '해산하는 여자의 절규'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소재로 한 송영옥 작품 '영면(차)' 등이 전시됐다. 또 일본인으로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도미야마 타에코가 5·18을 주제로 그린 '광주의 어머니'도 걸렸다. 문의 062-613-71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소현 윤혜원 이호준 황동인

## 호남예술제 입상 음악 꿈나무들 초청 공연

### 광장음악회, 내일 남구 노대동 물빛호수공원

올해로 61회를 맞은 호남예술제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명성을 이어왔다. 매달 한차례씩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를 초청, 야외음악회를 열어온 광장음악회가 6월에는 호남예술제에서 수상한 꼬마 음악가들을 초대해 무대를 꾸렸다.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 남구 노대동 물빛호수공원.

트링 앙상블의 '2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등이 장식한다. 이어 올해 호남예술제에서 비올라 부문 금상을 수상한 윤혜원(광주예고 1년) 양이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C장조' 1악장을 들려주며 독창 부문(1·2년) 최고상 수상자인 이호준(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1학년)군이 '꽃밭에서'를 부른다. 역시 독창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김지아(송원초 6년)양이 '하얀 달무지'를, 칸타빌레 중창단(김우진·정승민·이서영)이 '꿈을 채워요'를 부른다. 첫곡은 청소년들로 구성된 '듀오 스

상블 'PreSo Flutes'(김혜령·고효주·문예주·박서영·박서운·김여령)이 포레의 '파반느', 로시니의 '월리엄탈' 서곡 등을 연주한다. 또 고등부 최고상 수상자 바리톤 황동인(전남예고 3년)군이 브람스 곡 '너를 더 사랑 않으리'를 들려주며 금상을 받은 박소현(목포남양초등학교 6년)은 '내마음의 수채화'를 부른다. 그밖에 전남예고 교사인 박인승씨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순간'을 선사하며 'CNS 금관 5중주단'이 찬조 출연, 루이 암스트롱의 '성자의 행진' 등을 선사한다. 임경희씨가 사회를 맡았으며 피아노 반주는 이유평정이다. /김미은기자mekim@

## 싱어송라이터 박강수 목포 콘서트

### 19일 극단선창 예술인사랑방

'여자 김광석'으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 박강수가 목포에서 콘서트를 연다. 19일 오후 5시 극단선창 예술인사랑방. 이번 콘서트는 지난 5월 광주를 시작으로 펼쳐지고 있는 남도 소극장 투어다. 박강수는 주로 객석과 무대 거리가 1

m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며 관객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7집 수록곡 '나비', '춘몽', '동네한바퀴'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지난 2001년 '부족한 사랑'이 실린 1집 'SOON'으로 데뷔한 그녀는 시 노래 집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를 발매했으며 영화 '도가니' 주인공인 정각장에인

들 자립기금 마련 차선 음반 '말하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를 내놓았다. 지난해 7집 정규 음반 '나비'와 '동네한바퀴'를 발표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매 인터파크. 문의 02-322-42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신자유주의와 부끄러움' 학술대회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조윤호)이 17일(오전 10시) 전남대 G&R Hub에서 '신자유주의시대 감성의 영토와 부끄러움'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체 3부로 구성된 학술대회 1부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감성'을 논의한다. 우카이 사토시(일본 히토츠바시대) 교수가 '21세기 역사와 경제 사이에서'를 주제로 동아시아에서 수치의 나눔을 내용으로 논의의 문을 연다. 이어 정명중(전남대) 교수가 '괴물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내몰린 자들의

전위된 공격성을 논의하며, 사토 요시유키(일본 츠크바대) 교수가 '신자유주의와 경쟁적 주체의 생산'을 탐색한다. '부끄러움의 성장성'을 논하는 2부에서는 후종성(중국 안휘대) 교수가 중국 전통사회 및 그 교화의 실질을 '치욕'이라는 개념으로 살핀다. 3부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부끄러움'을 주제로 레이저리(중국 화동사범대) 교수가 신자유주의 시대 새로운 매체와 사회문화의 하류화를 짚어본다. 문의 062-530-049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면 1층) 일요일 휴관

**아프리카 소녀조각 앙코르 전시회**  
\* 400여점 전시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 YHB ECO

창사 29주년

www.yhb.co.kr

**YHB 전기 집진기**

생활주변 지긋지긋한 연기, 냄새를 전기집진기가 확 제거해 드립니다.

직화구이 연기, 냄새,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연기흡입 → 청정공기배출

10분에 1번 자동 에어세척

**직화구이 연기, 냄새 제거 95%**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 주의보 발령/대기오염 규제 실 대응 해결책!!

**추**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념 특별가 공급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광주영업소 **무등산업**  
T.062)371-7095 F.062)375-3409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탈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우테크노타운 12차 501호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062-952-6633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제동)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